

파견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파견대학	국가	일본
	대학명	메이지대학교

개요

24학년 봄학기에 한 학기 간 일본 도쿄에 있는 메이지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으며, 다녀오고 느낀 점, 제 경험, 그리고 추후 가시게 될 후배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 등을 정리하여 글로 남기고자 합니다.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항공권

제일 먼저 출국 일정을 결정하고 항공권부터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자 발급이나 보험 가입 시 항공편 번호를 묻기 때문에 이를 우선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충청권에서 거주한다고 할 시 크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만, 청주국제공항에서 에어로케이를 통해 나리타 공항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서울의 인천 또는 김포 공항에서 각종 항공사를 통해 나리타 또는 하네다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운항하는 저가 항공사가 대체로 항공권 가격만 보면 매우싼 편이나, 충청권에 거주하는 경우 공항까지 이동하는 비용도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나 KTX / 공항철도 이용 시 +2~3만 원)

제 경우, 아시아나 항공이 저가 항공사와 가격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위탁 수하물의 최대 무게가 더 높은 점을 고려하여 (15kg vs. 23kg) 아시아나 운항의 인천 -> 나리타 항공편을 예약하였습니다.

입국 날짜의 경우, 학기 시작 전에 여행을 하고 싶은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기숙사 입사 기간과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최소한 이 기간에는 맞추어서 입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 경우, 3월 21일부터 기숙사 입사 기간이었기에 당일 오전에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 전날인 3월 20일에 입국하였습니다.

제 경우 출발 2개월 전 구매하였으며 편도 약 22만 원으로, 대체로 빨리

구매할수록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귀국편 항공권은 혹시 모를 일정 변경에 대비해 같이 예매하진 않았습니니다.

나. 유학생보험

충대에서 메이지대로 파견 나가는 학생이 가입해야 할 보험은 메이지대에서 운영하는 학생보험, 일본의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보험사의 유학생보험으로 총 3개가 있습니다만, 이 중 메이지대의 학생보험과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은 입국 후에 가입하기에 출국 전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유학생보험 이외엔 없습니다.

현대해상	상해/질병 5만달러 '스탠다드 플랜'이 할인포함해서 ₩347,900
한화	만23세 남성, 5개월 기준 상해/질병 보장금액 따라 (5000~1000만원) ₩209,720~167,380 국내 실손의료비 제외시 ₩1,500정도 빠진다고 함
삼성화재	상해/질병 등 보상금액 지정 가능함, 자가부담금 지정 가능 (높게 하면 보험료가 저렴) 국내실손 제외, 상해/질병 3만달러에 197000원 배상책임 X?
KB손해보험	상해/질병 등 보상금액 지정 가능, 상해/질병 3만달러에 ₩160,033 대물 책임보상? 이 있기도 하고 가격도 이쪽이 더 싸서 삼성화재랑 고민하던 차 KB로 고름.
DB손해보험	상해/질병 3만5천달러 '실속형' 이 252,710원

그림 1 각종 보험사 비교

여행 시 가입하는 일반 여행자보험과는 다르게, 거주 비자로 3개월 이상 체류할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유학생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했던 회사들은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었습니다. 보험 약관이나 보상 내용 등은 수시로 변경되고, 개개인에 따라서도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직접 확인하여 비교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 경우, KB손해보험이 가격과 보장 범위를 고려하여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KB손해보험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다. 비자

비자 발급의 경우, 코로나 이후로 주한일본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사관이 지정한 대행사를 통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행사는 모두 서울/경기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등기를 통한 접수를 진행하는 업체도 있기에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 JEC(<https://jectour.co.kr/xel/>) 라는 업체를 통해 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5만 원 + 등기료 4000원으로, 월요일 발송하여 금요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등 문의 창구가 존재하여, 서류 등에 대해 문의하면 잘 알려주셨습니다.

유의사항으로, 사진 제출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여권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보낼 시 여권의 발급 일자가 6개월 이상 지났을 시 사진이 오래되었다고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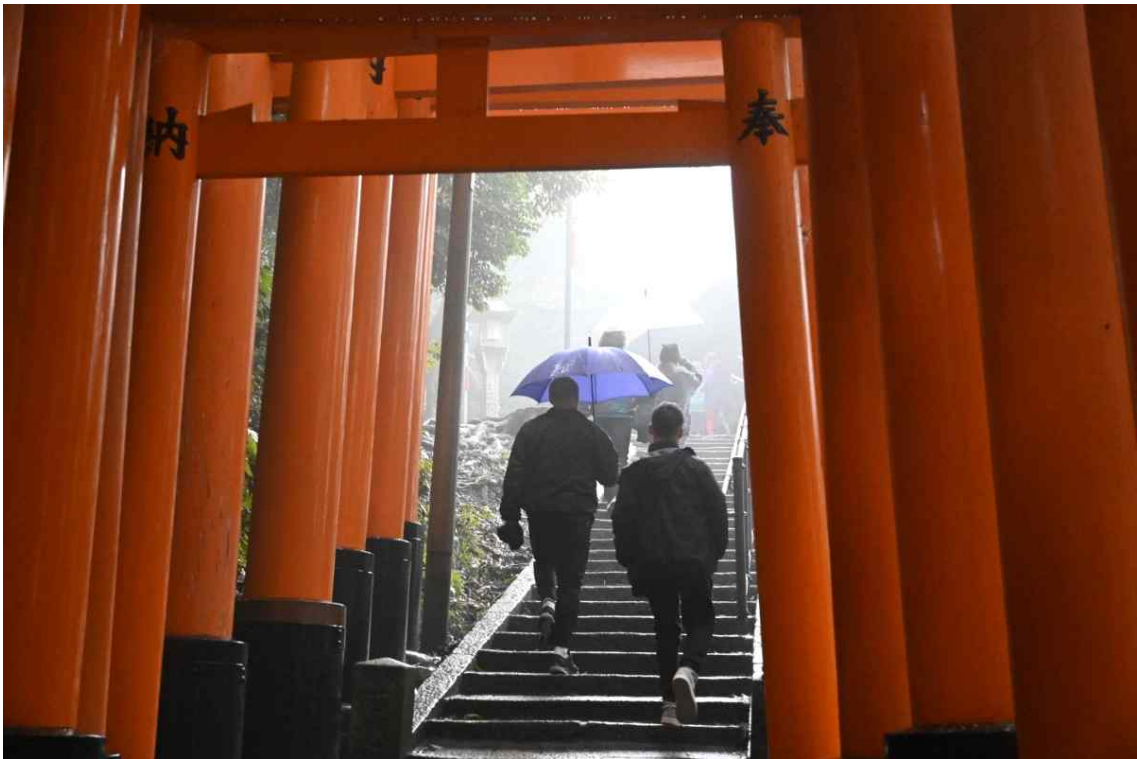


그림 2 ‘센본토리이’로 유명한 교토시의 후시미이나리 신사.

일본어에 대해서는 교환학생에 합격하셨을 정도의 일본어 실력이면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판단하기에 생략합니다. 일본인은 예의와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간혹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하며, 이를 말과 행동에서 매우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보존하려는 면과 새로운 시도와 기술이 혼재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일본 사회를 관료주의의, 혁신을 거부하는 보수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회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성향이 크다고는 생각합니다.

물가 면에서는 도쿄의 살인적인 집세를 제외하면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한국의 물가와 다르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생필품이나 식품 전반 등 특별하게 비싸다고 느낀 부분은 없으며, 오히려 식품 면에서는 조금 더 싸다고 느낀 때도 있었습니다.

나. 파견 대학

1) 대학 선택 이유



그림 3 학교의 마스코트 캐릭터 메이지로

제가 메이지대를 지망한 제일 큰 이유는 대학의 위치였습니다. 일본의 수도로 일본의 중앙에 있는 도쿄에 있는 편이 도쿄 안에서도, 그리고 이동 수단을 통해 도쿄 밖에서도 편리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쿄도와 그 주변의 현을 포함한 수도권에만 40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경험할 수 있는 행사도 경험도 제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신칸센이나 국내선 항공편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제일 쉬워, 일본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학의 명성이기도 했습니다. 메이지대는 도쿄의 명성 있는 5대 사립 대학을 줄여 부르는 약칭인 MARCH의

일원으로, 140년 이상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일본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재를 양성해낸 학교이기 때문에 일본의 우수한 대학교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경험해보고 싶었기에 메이지대를 지망했습니다.

2) 공항 - 학교, 캠퍼스

공항 - 학교 이동의 경우 첫 입주 시 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되어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쿄로 들어오는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나리타 공항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까지의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 (전철 1시간) 캠퍼스까지는 약 2시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숙사가 위치한 이즈미 캠퍼스 기준으로, ‘나리타 익스프레스’ 특급 열차에 탑승하여 신주쿠역까지 이동한 뒤, 신주쿠역에서 케이오 선으로 갈아탄 뒤 메이다이마에 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그림 4 스루가다이 캠퍼스 ‘리버티 타워’
메이지대학교는 도쿄 23구 안에



그림 5 리버티 타워 21층에서의 전경

스루가다이 / 이즈미 / 나카노 캠퍼스를, 그리고 인접한 카나가와 현에 이쿠타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학과에 따라서 캠퍼스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문과 학부 학생은 1~2학년엔 이즈미, 3~4학년엔 스루가다이 캠퍼스를 다니고, 공대 / 농대의 경우엔 이쿠타 캠퍼스, 국제일본학과 등 신설된 학과의 경우 나카노 캠퍼스로 통학하게 됩니다.



캠퍼스가

그림 6 이쿠타 캠퍼스, 연구실에서의 전경

다양하게 있으나 기본적으로 서클 활동이나 일본어 교실 이외에 학과 캠퍼스 이외의 캠퍼스에 가게 될 일은 없습니다. 제 경우, 주 1회 이쿠타 캠퍼스, 주 3회 스루가다이 캠퍼스로 통학하였으며, 이즈미 캠퍼스는 행사 등으로 간혹 두어 번 방문하였으나 나카노는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스루가다이 캠퍼스의 경우 도쿄에서도 제일 정중앙의 치요다구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즈미 캠퍼스의 경우 제일 면적이 넓은 캠퍼스로 신입생 환영회 등 큰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쿠타 캠퍼스는 꽤 도심에서 벗어나 있고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캠퍼스에 비교하면 시골이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차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강 신청, 수업 내용 (프로그램 과정)

일본 대학에서는 수강 신청을 ‘履修登録’ (이수 등록)이라고 합니다. 메이지대의 경우 수강 신청은 학기가 시작한 뒤에 이루어지며, 듣고 싶은 수업을 ‘가등록’을 하여 첫 주 수업에 나가본 뒤, 듣기로 한 과목을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면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한국의 경우 1학점 = 주 1시간으로 일반적으로 과목 1개당 3학점으로 주 3시간의 강의를 1회 진행하거나 1시간 / 2시간으로 주 2회로 나누어 진행하는 등 자유롭습니다만, 메이지대의 경우 1교시 100분, 점심시간 60분으로 한국의 중고등학교와 같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 과목 1개당 2학점으로 주 1회 1교시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학점인 과목도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 전용 일본어 강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본어 강의와 국제일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본어 강의를 나누어 있습니다만, 제 경우 일반 일본어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일본에 가기 전에 치는 테스트와 도착해서 보는 면접을 통해 종합적인 일본어 실력에 따라 레벨 1~8과 상급의 9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수업이 이루어지며, 제 경우엔 레벨 7에 속했습니다. (JLPT는 N2를 취득했습니다).

레벨 7의 경우, 독해, 종합, 문법/어휘, 문장표현, 구두표현으로 나누어 있어,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레벨 7 이상의 중상급 교실의 경우, 과목을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가능하여 다른 강의를 우선하여 일부 과목만 듣는 유학생도 많았습니다. 그중 종합 과목은 ‘비즈니스 일본어’라는 주제로, 일본 취직에 관심이 있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회사 배경에서 사용되는 경어나 비즈니스 에티켓 등에 대해 교육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일본어 강의의 경우, 단순 암기 등으로 일본어를 배운다기보다는, 대부분이 그룹 활동이나 활동을 통한 고찰 등을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쓰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지루하다는 생각이 한번도 안 들 정도로 흥미로웠습니다.

제 경우 일본어 강의 5개 외에도, 컴퓨터공학과와 전공 강의를 3개 수강하였으며, 그중 2개는 충북대의 과목과 매칭되는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전공 강의의 경우 학과별로 시간표가 크게 다르다 보니 조언이 어려우나, 주의할 점이라면 학과나 학년에 따라 캠퍼스가 다를 수 있기에 수강 계획 시 캠퍼스 또한 고려하여 1일 중 캠퍼스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을 매우 권장합니다.

4) 기숙사

메이지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는 (2024년 봄 기준) 총 5곳이 있었습니다. 이즈미 캠퍼스 부근에 있는 메이지 글로벌 빌리지와 이즈미 인터내셔널 하우스, 나카노 캠퍼스 부근에 있는 도쿄 여자 학생회관 (여성 전용), 이쿠타 캠퍼스 부근에 있는 코마에 인터내셔널 하우스, 그리고 이즈미 캠퍼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D-PLACE 시모타카이도가 있습니다.

기숙사라고는 하나 모두 기본적으로 개인실이 주어져며, 시설에 따라 일부 공용 공간이 존재하거나 규칙이 조금씩 다른 등 차이는 있습니다.



그림 8 기숙사 내부 사진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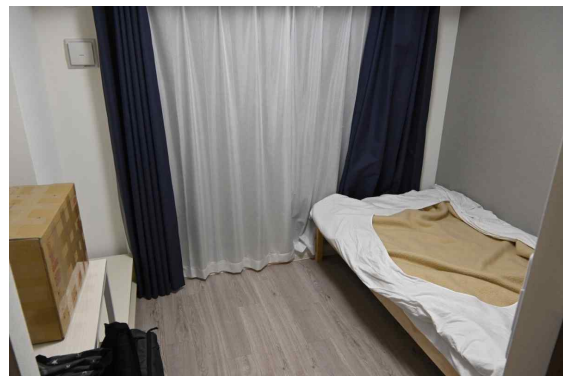


그림 7 기숙사 내부 사진 (일부)

메이지대에 교환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제일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기숙사 지망 선택으로, 기숙사 중 지망 순위를 정하면 그중 하나가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중 제가 배정받아 생활한 곳은 D-PLACE 시모타카이도로, 이즈미 캠퍼스에서 전철로 약 10분 거리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여 있는 곳입니다. 기숙사라고는 하나, 관리 회사에서는 ‘학생 맨션’이라는 분류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이름에 걸맞게 기숙사라기엔 원룸 아파트에 가까운 구성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메이지대 외에도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23년에 신축하여 제가 첫 입주자였을 정도인 새 건물로 가장 깨끗하고, 유일하게 개인실 안에 조리 시설이 있는 시설로 개인실 안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 개인적 공간을 중요시하는 경우 좋으며, 평일 아침과 저녁에 급식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입주 시 식대 필수로 일괄 납부).

단점으로는, 가격이 월 88000엔 (식대 미포함)으로 제일 비싸고, 타 학생들과 교류할 공간이나 기회가 거의 없어 교류를 원할 경우엔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교통이 이즈미 캠퍼스에 있는 기숙사에 비해 미묘하다는 점입니다. 이즈미 캠퍼스가 위치한 메이다이마에를 필수로 지나가게 되다 보니 환승 횟수가 늘어나고, 특급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제 경우, 기숙사 지망 순위를 선택할 때 고려한 기준으로는 전공 캠퍼스가 이쿠타인 걸 고려하여, 거리순으로 코마에 IH - D-PLACE - 글로벌 빌리지 - 이즈미 IH의 순서로 넣었고, 그중 2지망인 D-PLACE로 배정받았으나, 실제 학교에 다녀보면서 느낀 점은 주 3회 스루가다일로 향하는 만큼 굳이 이쿠타와의 거리를 고려해서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으며, 지금 생각하면 글로벌 빌리지 - 이즈미 IH - D-PLACE - 코마에 순으로 지망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기숙사를 신청하기 전에 어떤 강의를 수강하고 싶은지 시간표를 먼저 짜서 어느 캠퍼스로 가장 자주 가게 될지 조사한 뒤 신청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5) 교내외 활동



그림 9 연구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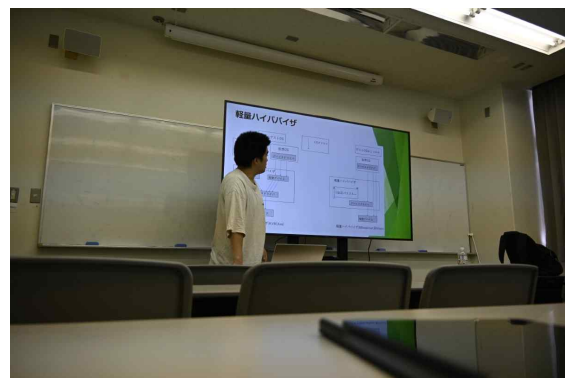


그림 10 연구 내용 발표

교내 활동 중 개인적으로 제일 독특하고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미’였습니다. 제미란, 영어 ‘Seminar’와 같은 어원의 독일어에서 따온 말로, 지도교수 밑에 학생들이 모여 같은 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연구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컴퓨터공학과가 속한 이공학부의 경우, 3학년 이상의 경우 지도교수를 선택하게 되어있으며, 해당 지도교수의 연구실에 속해 제미에 참가하게 됩니다. 제가 속했던 연구실은 고속 병렬 연산 연구실로, 평소 흥미를 느끼고 있던 분야기에,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학부 과정에서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점과, 학교에 연구실이라는 내가 속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 매우 신선하게 느껴져서 한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외 활동으로는 서클 활동을 정말로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일본의 대학에는 다양한 서클 (동아리) 가 존재하여, 자신의 취미와 일치하는 서클에 참가하여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활동하며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에 열리는 학교의 축제가 4월 초, 학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각 캠퍼스에서 신입생 환영회와 서클원 모집을 진행하며, 다양한 서클에서 공연이나 관련 활동 및 전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눠주는 서클 안내 집의 두께만 1cm가 가까이 될 정도로, 스포츠, 연주, 연극, 게임 등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서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림 11 서클 야구회

제 경우, 제가 하고 있던 게임의 서클에 참여하였는데, 다 같이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점심에 모여서 밥을 먹고 인터넷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친구를 많이 만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스루가다이 캠퍼스의 경우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으로 유명한 아키하바라에서 도보 10분 거리일 정도로 가까워 다 같이 자주 방문하고는 했습니다.

유학 생활 특성상 학교에서 자주 접하는 얼굴이 없어 친구를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인맥을 쌓고 싶다면 서클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권장하고 싶습니다.

6) 꿀팁 (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장기 거주 비자로 입국한 유학생의 경우 각종 관광객 전용 승차 패스 등의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다양한 곳에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본의 높은 교통비로 인해 좀처럼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 할인증을 발급받아 전철의 운행 거리가 100km 이상인 경우 승차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하므로, 장거리 여행을 할 일이 있다면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여행 정보 (학기 중 또는 학기 후 여행)

일본의 기간 한정 패스 중 ‘청춘 18 티켓’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약 1만 2천 엔으로 5일간 신칸센과 특급을 제외한 일반 열차에 거리에 무관하게 승차할 수 있는 티켓인데, 시간은 조금 소요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차표를 예약하는 것에 비해 월등히 싼 가격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림 12 나라 공원의 사슴

이 티켓을 이용해 학기가 끝나고 기숙사를 퇴사한 뒤, 귀국하기 전 5박 6일로 일본의 남부 지역을 여행하였습니다.

도쿄 - 나고야 - 나라 - 오카야마 - 타카마츠라는 경로로 다니며 관광을 했는데, 그중 나라를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사카나 교토를 여행 시에 하루 정도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정도 느긋하게 여행하며 다니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장기간 거주하며 경험하는 것은 여행으로 외국을 가서 경험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행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경험을 통해, 외국의 색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비교하면서 즐기고,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